

#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제도 전개 과정 연구

박정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한국과 중국, 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은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은 인종과 문화, 언어가 다른 국가 간 ‘아동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왔다. 한국전쟁 직후 ‘예외 상태’에서 임시방편으로 추진된 혼혈아동의 미국 입양 이후, 한국에서 60년 넘도록 국외입양제도가 아동복지의 방안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국외입양제도를 본격 도입한 중국은 20세기 최대 입양송출국이던 한국의 전철을 답습한다. 중국에서는 한자녀정책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유기된 여아가 중국 내에서 입양되지 못한 채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는 경제 사정 악화와 미혼모 지원 부족, 비혈연 친족관계에 대한 반감으로 국외입양이 증가 추세다. 절대빈곤과 에이즈의 창궐, 자연재해, 불법 입양 등으로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는 여타 입양송출국과 차별화된 국외입양 현상이 동아시아 3국에서 공히 나타난다. 오늘날 동아시아 3국에서는 미혼모 지원 부족과 남아선호사상, 한자녀정책이 입양송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점은 빈곤 문제의 개선만으로 동아시아에서 국외 입양송출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동아시아는 대부분의 입양수용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보인다.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는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국외입양이 지속된다는 점은 국가 재생산정책의 허점을 보여준다. 20세기 후반부터 동아시아에서는 입양인들과 원가족, 미혼모,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국외입양제도를 비판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주제어 동아시아, 국외입양, 입양송출국, 비판적 입양 연구, 입양의 제도화

## I.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국외입양제도의 전개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의 현재를 고찰하고자 한다. 동아시아가 국외입양의 역사에서 주요 입양송출국(sending country)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에 대한 지역 차원의 접근이 충분하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를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작업은 동아시아 현대사가 파생한 문제가 지역 규모로 담론화되는 장을 제공할 것이다(Choy, 2013; Pate, 2014).<sup>1</sup> 2004년 이후 전 세계 국외입양의 감소세는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이

<sup>1</sup> 오늘날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이 여러 방면에서 논의된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냉전질서하에서

줄어든 결과나(Selman, 2009), 국외입양의 감소를 단지 입양 공급의 감소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20세기 후반부터 제기된 비판으로 고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각됐던 국외입양의 실태가 밝혀지고 있다(Myong et al., 2015; Sørensen, 2014: 155).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등 여타 입양수용국과 유사한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Kim, 2010: 33). 합계출산율에서 세계 최저 수준인 동아시아 국가는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서 인구절벽을 비롯한 인구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삼식, 2014: 6; 中華民國統計資訊網, 2015: 12). 그럼에도 국외 입양송출을 중단하지 않는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王美恩, 2014).<sup>2</sup> 입양송출국에 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 실태는 고아 증가나 궁핍, 자연재해가 국외 입양송출의 근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Kim, 2015: 62).<sup>3</sup>

본고는 동아시아 3국의 국외 입양송출의 원인을 비교하며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려 한다. 2004년부터 전 세계 입양송출 통계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중국(Selman, 2015)은 매년 수천 명의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고 있다(文匯網訊, 2013). 대만 역시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국외로 아동을 입양 보내므로 국외입양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sup>4</sup> 세계 최대 입양수용국(입양국)인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 9만 8,911명의 동아시아(중국, 한국, 대만, 일본)의 아동을 입양했다(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2016).

아동을 입양하며 양부모가 지불하는 막대한 입양수수료가 논란의 중심에 있

구호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인종적 입양(transracial adoption)의 서막,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와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서 혼혈아라는 오점(stigma)으로 박해에 시달리던 소위 '아메라시안들(Amerasian)'의 미국 입양, 인구조절의 목적을 담보하는 이민장려정책과 국외 입양송출의 공통점, 전후 미국에서 국외입양의 기능이 논의되고 있다.

<sup>2</sup> 대만에서는 저출산(少子化) 문제가 국가 안전문제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외 입양송출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sup>3</sup> 한국의 국외 입양송출은 한국경제가 성장을 가속화한 1970년대와 1980년에 급증했다. 일례로 1985년에 8,800여 명의 한국 아동이 국외로 입양되기도 했다.

<sup>4</sup> 전 세계 최대 입양수용국은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이다. 동아시아 아동을 미국과 북·서유럽, 호주와 캐나다에 주로 입양된다. 눈에 띄는 점은 대만 아동 중 상당수가 네덜란드에 입양된다는 점이다.

다(트렌카, 2010: 42). 입양 과정에서 거액의 돈이 오고간다는 점은 불법 입양과 아동매매, 입양기관 간 과열경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이예원, 2009: 164; 정소라, 2016b: 55). 아동을 유괴한 후 고아로 위장해 국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세탁(child laundering)’ 사건이 중국에서 빈발하자(高曉瑩, 2010) 미국은 중국 아동의 입양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sup>5</sup> 한국에서는 양육 의지가 있는 미혼모가 입양기관과 상담을 거쳐 자녀를 시설에 양도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李冬琪, 2007; 권희정, 2011: 60). 혹자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대책이 시행되는 와중에 국외 입양송출이 지속되는 현상을 가리켜, 한국의 가족정책이 중산층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Kim, 2015: 60). 대만에서는 소외계층의 양육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제대로 분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한창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동아시아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의 지적에 머물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국외입양의 폐해를 없애나가는 움직임을 살펴본다. 입양수용국 및 양부모의 관점이 반영된 기존의 입양 연구에서 국외입양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입양송출국 및 입양인과 원가족의 노력은 간과되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외입양의 폐단을 시정해나가는 입양송출국의 움직임과 입양 관련 주체들의 활약을 탐색하는 본 연구가 동아시아 국외입양제도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선행 연구 검토

본고에서는 국외입양 관련 연구를 크게 세 방향으로 검토한다. 첫째, 국내 연구동향 분석, 둘째, 동아시아 지역 연구동향 분석, 셋째, 입양수용국의 국외입양을 연구 분석할 것이다. 최근 일군의 입양인과 유색인종 연구자의 참여로 탄력을 받은 비판적 입양 연구(critical adoption studies)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외입양 연구에서는 입양송출국이나 비서구 지역의 연구가 잘 소개되어 있지 않다. 하지

<sup>5</sup> 국외로 입양되는 중국 아동 중 80%가량이 미국 가정에 입양되는데 최근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林妍, 2016). 중국 입양아 중 장애아동이 적지 않아서 2009년에 국외로 입양된 중국 아동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장애아였다. 2005년에 입양된 아동 중 장애아가 9%에 불과했던 중국에서 최근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을 장애아로 구성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만 20세기 후반부터 여러 입양송출국에서 국외입양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국외 입양 연구의 패러다임이 점차 변하고 있다.<sup>6</sup>

첫째, 국내에서 국외입양 관련 연구는 한국 출신 입양인이 체험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도적으로 모색한다는 의의가 있다. 거시적 시각에서 놓치기 쉬운 로컬의 특성을 파악하는 국내 연구는 전반적으로 국외입양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정소라는 전 지구화된 국외입양의 연결고리에서 한국의 “가부장 없는 가부장”의 여성 혼외출산 억압으로 인한 미혼모들의 양육 포기를 지적한다(정소라, 2016a). 이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양육을 가로막는 제반 요인을 고찰하며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국외입양의 폐단을 방지한다고 논구한다. 한국의 국외입양 역사를 아동인권 차원에서 분석한 김재민의 글은 대규모 국외입양이 입양인과 원가족의 권리를 침해한 점에 집중한다(김재민, 2016). 국외입양을 입양수용국과 입양송출국의 이해관계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하는 이예원의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에 맞서는 입양인들에 주목한다(이예원, 2008). 권희정의 연구는 한국에서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학 도입이나 근대 핵가족 언설이 혼외관계 밖으로 미끄러진 여성의 모성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외 입양을 촉진한 배경을 조명한다(권희정, 2014a).

둘째, 국외입양 연구가 입양수용국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국외 입양 연구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의 연장선상에서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외입양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sup>7</sup> 두 번째로, 일본처럼 국외입양 건수가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적

<sup>6</sup> 한국을 비롯해서 대만, 브라질, 중국 등지에서 국외입양을 입양송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sup>7</sup> 任麗華 外, 2006, “未婚懷孕少女生育之福利需求與政策內涵: 人文區位的分析,” 『臺大社會工作學刊』 13, 41-107; 伊藤 翼, 2010, “國際養子縁組に関するいわゆるセーフガード条項の適用範囲(2·完) 國際私法上の子の利益保護の観点から,” *The Graduate School Law Review* 136, 27-53; 小山 修 外, 2005, “國際養子縁組制度に関する國際比較調査研究,” *Reports of Studies of Japan Child and Family Research Institute* 42, 71-80; 笠原俊宏, 2001, “國際養子縁組法における子の保護について: 若干の比較立法的考察,” 『比較法』 38, 215-243.

은 국가에서 타국의 국외입양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sup>8</sup> 마지막으로, 자국 입양 제도의 특수성을 입양법과 연관 지어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床谷文雄, 2011). 이 중 판케(范可)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눈에 띄는 가구(引人注目的家庭)’인 입양가정의 등장 배경을 고찰하는데, 용광로 개념이 확대된 미국에서 반체제문화와 흑인 운동이 확산되며 인종에 관한 고정관념이 약화된 것이 타인종 아동(중국 아동)을 입양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范可, 2013). 대만 아동의 네덜란드 입양을 연구한 왕메이엔(王美恩)은 1970년대 경제난으로 국외입양이 본격화된 대만에서 장애아 입양송출이 두드러졌으며,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이 입양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지적한다(王美恩, 2013). 이 연구에서는 아동 권익 향상과 법률 개정 작업으로 입양의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대만의 현재를 조망한다.

셋째, 서구에서 국외입양 관련 연구가 활성화된 데는 중산층 백인이 국외입양을 주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Gailey, 2010: 92). 서구의 입양 연구에서는 양부모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Sørensen, 2011: 54). 우선, 입양되기 전 열악한 시설의 보육시설에 방치된 아동이 서구에 입양된 이후 순조롭게 성장하는 양상을 규명하는 연구가 전개됐다(Dalen et al., 2012). 그러다가 이전과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연구가 20세기 후반에 발표되기 시작하는데, 국외입양에 관한 전향적 시각을 담지하게 된 현재의 입양 연구에서는 일련의 경향이 감지된다(Ben-Zion, 2014: 6). 우선, 국외입양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려는 시도(Brian, 2012; De Graeve, 2013; Howell, 2007; Lind, 2012), 입양인들의 연구(Myong et al.,

<sup>8</sup> 片岡 佳美, 2016, “Pursuit of Democratic Family and Stabilization of “Our Family”: A Case Study of Intercountry Adoptive Parents in Finland,” 『社会文化論集: 島根大学法文学部紀要社会文化学科編』 12, 1-13; 清末 愛砂 外, 2015,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doption System in New Zealand and its Future Agenda,” 『国際公共政策研究』 19(2), 1-15; Deguchi Akira, 2015, “Transnational Adoption as a Way of Family Form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Swedish adopte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History* 29, 113-128; 近藤 理恵 外, 2014, “Policies on Adoption in Korea,” 『岡山県立大学保健福祉学部紀要』 21, 87-94; Kataoka Yoshimi, 2013, “How Do We Recognize Our Familiiy as a Family?: A Case Study of a Finnish Mother after International Adoption,” 『社会文化論集: 島根大学法文学部紀要社会文化学科編』 9, 1-13; 芝 真里, 2013, “Multiple Nationalities and A New Perspective on Identity: A Case Study of the Korean Adoptees’ Positions in the Amended Korean Nationality Act in 2010,” 『移民政策研究』 5, 82-98.

2015; Nelson, 2009; Novy, 2005; Rinhaug, 2010; Sørensen, 2014), 세계화의 이면이나 신 식민주의의 형태로 국외입양에 접근하는 연구(Briggs, 2012; Eng, 2010), 기존 입양 연구에서 소외되어왔던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 주목하는 연구(Dijkstra et al., 2011; Zhao, 2012), 특정 입양수용국이나 입양송출국의 개별 사례에 집중해서 국외입양 문제를 이해하는 연구로 다변화되고 있다(Ben-Zion, 2014; Fonseca, 2002; Leinaweaver, 2013).<sup>9</sup>

본고에서는 입양을 지역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연구에 주목한다. 국외입양 연구에서는 입양송출국을 대륙별, 인종별, 소득별로 구분하는 비교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 입양 연구에서 소외되어왔던 동아시아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도 의의를 둔다.

## II.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 전개 과정

### 1.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의 특수성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을 고찰하는 본고에서는 그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국가별로 살펴본다. 한국과 중국, 대만 외에도 베트남과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국외로 상당수 아동을 입양 보내고 있다(Selman, 2016). 일단 국외 입양송출이 시작되면 전면 중단하기 어려운 탓에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입양송출국의 국외입양 중단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다(Fonseca, 2002: 38). 게다가, 불가피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아동을 입양 보내야 할 새로운 동기가 생기며 국외 입양송출이 지속된다(Selman, 2012: 5).<sup>10</sup>

<sup>9</sup> 폰세카(Cláudia Fonseca)와 브릭스(Laura Briggs), 더빈스키(Karen Dubinsky)의 중남미 지역 입양 연구뿐 아니라, 북유럽과 중국, 한국, 캐나다, 스페인에 대한 연구는 특정 국민국가의 국외입양에 주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외입양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sup>10</sup> 21세기 국외입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아동 '구출(rescue)'에 집중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Leinaweaver, 2013: 115). 일정 수준 이상의 입양 관련 법률과 제도 완비, 사회 복지, 그리고 에이즈나 기타 중대질환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아동 공급 여력이 있는 국가 위주로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낸다. 반면, 동아시아를 제외한 여타 입양수용국에서는 빈곤과 인신매매, 자연

표 1 주요 입양수용국의 동아시아 아동입양 현황

(입양아 수, 2001~2013)

	중국	한국	대만
스페인	13,330	0	0
캐나다	6,466	858	143
네덜란드	4,687	349	729
스웨덴	3,521	1,224	274
노르웨이	2,315	854	0
프랑스	2,044	108	12
덴마크	1,544	500	18
호주	867	688	253
이탈리아	613	15	17

한편 국외입양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는 세상의 모든 재화가 전 지구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므로, 비용만 지불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국외입양제도에 붙여넣고 있다(트렌카, 2010: 44). 초국가적으로 입양사업을 펴는 동아시아 3국의 입양기관 가운데 건강한 신생아를 다수 확보한 기관은 입양자들(예비 양부모들)에게 선호된다. 국외입양은 아동의 국적이나 인종, 연령과 무관하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 기초하지만,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입양자의 수요가 중요시된다(Castañeda, 2002: 108).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아동 중 극소수만 입양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특질을 지닌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인기가 있다(Kim, 2010: 37). 동아시아 아동이 서구에 널리 입양될 수 있었던 데는, 아동의 인종과 국적, 건강 상태, 연령, 입양수수료, 유기된 배경이 입양자의 기대에 비교적 잘 맞았기 때문이다. 건강한 영아(Selman, 2006: 197)<sup>11</sup>로서 영리하고 순종적이라고 알려진 동아시아 아동이 백인 영아의 대체물로 부상했던 것이다(Poncz, 2007: 48). 아시아 아동 수요는 아시아인에 대한 서구에서의 소위 ‘긍정적인 고정 관념’과 무관하지 않은데(Eng, 2010: 107; Tuan et al., 2011: 25-26) 순종적인 인종으로

재해가 입양송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sup>11</sup> 한국 입양아 중 1세 미만 영아가 92%를 차지하는 등 한국 입양아는 전 세계 입양아 중 가장 연령이 낮다(보건복지부, 2016).



인식된 결과 동아시아 아동이 전 세계로 입양될 수 있었다.

표 2는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동아시아 3국에서 최근 입양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련의 법률 개정 작업은 국내외적으로 국외 입양송출이 비판을 받자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동시에 동아시아 3국 중 한국만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만 했을 뿐 아직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3국에서는 국외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연령과 입양아와의 연령차, 소득 및 학력, 건강 상태, 성적지향 및 결혼 상태, 입양 송출국 방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양부모가 입양송출국에 직접 방문해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아동을 데려갈 것을 명시한 조치는 과거 ‘우편주문 아기(mail order baby)’가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탄 받은 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sup>12</sup> 다음은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 2. 한국: 전쟁고아에서 미혼모 자녀 입양송출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국외입양이 지속되고 있다. 1958년부터 2015년 사이 국외로 입양된 전 세계 아동 중 최소 16만 6,512명 이상이 한국 아동으로 집계된다(보건복지부, 2016). 비공식 입양이나 불법 입양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국 태생 국외입양 규모를 20만 명가량으로 추산하는 통계도 많다(Kim, 2012: 439). 한국전쟁 이후 고아나 빈곤가정 자녀, 혼혈아가 주로 국외로 입양되던 것이 1970년대 이후 미혼모 자녀의 국외입양으로 이어졌다(권희정, 2009: 100; Trenka, 2011: 142).

한국 아동의 국외입양이 1970~1980년대에 성황을 이루자 한국은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입게 됐다(정현미, 2011: 112). 한국의 국외입양은 국외에서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어왔다. 한국에서는 미혼모의 양육을 지원하기보다 입양을 유도하는 입양기관의 태도(권희정, 2015: 53), 국외 입양자에게 요구하는 고액의 입양수수료, 입양동의서를 친부모가 아닌 조모 등 제3자에게 받는 편법,

<sup>12</sup> 동성애자의 입양을 사실상 허용해왔던 중국과 대만에서 동성애자의 입양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동성애자들의 중국 아동 입양이 실제 지속된다고 지적된다(Dorow, 2006: 83).



표 2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제도의 특징

국가	한국	중국	대만
입양관할 기구	중앙입양원	중국아동복지·입양센터 (中国儿童福利和收养中心)	아동·청소년입양정보센터 (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최근 입양 법 개정	2011 법률 개정, 2012 시행	2007	2011 법률 개정, 2012 시행
입양 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세 이상의 연령(입양자와 입양아와의 연령차가 50세 이상이면 불가), 최소 3년 이상의 혼인 상태</li> <li>무자녀 상태이거나 자녀 수가 입양아 포함 5명 이내</li> <li>독신자 입양 불가</li> <li>2회 이상 한국 방문 의무(이 중 1회는 부부동반)</li> <li>현재 신경정신질환자 입양 불가(우울증, 불안장애 포함), 비만이면 다소 곤란</li> <li>범죄 기록이 있을 시 심층심사</li> <li>경증장애아나 입양아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입양하겠다는 의지(권장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50세 연령의 부부(장애아 입양 시 55세까지 허용)</li> <li>18세 미만 자녀가 5인 이상이면 불가(장애아 입양 시 입양자의 자녀 수와 무관), 이성에 결혼을 한 기혼자</li> <li>부부 중 1인이 재혼했을 시 최소 5년 이상의 혼인기간</li> <li>남성독신자 입양 불가</li> <li>양부모 중 1인이 최소 1회 이상 중국 방문(평균 14일 체재 의무)</li> <li>신체 및 정신건강, 중대질환이 없는 비장애인</li> <li>범죄기록이 없어야 함</li> <li>고졸 이상의 학력</li> <li>부부 중 1인은 고용상태, 10,000 미국 달러 이상의 연소득(80,000달러 이상의 가족 자산 보유)</li> <li>동성애자의 입양은 기본적으로 불허</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 신청 당시 연령이 25세에서 50세 사이의 기혼자로, 혼인기간이 2년에서 5년 경과해야 한다. 입양자가 입양아보다 최소 20세 연장이어야 한다. 부부 중 1인이 입양을 원할 경우 상대 배우자의 동의</li> <li>유자녀 부부의 경우 자식의 연령이 최소 2세에서 최대 18세 정도. 입양 완료 기준에서 자녀 수 4명 초과 금지</li> <li>독신자 입양 불가(단, 중증장애아 입양은 가능)</li> <li>신체 및 정신 건강, 비만이면 곤란</li> <li>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li> <li>고졸 이상의 학력(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전문직 우대)</li> <li>고용안정성, 양호한 주거환경, 안정된 자녀 지원 가능</li> <li>동성애자 입양 불가</li> <li>여러 입양기관에서 기독교신자에게만 입양 허용</li> </ol>
특이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법원 허가제)</li> <li>입양을 보내기로 동의한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 가능(입양숙려제)</li> <li>입양대기 아동 중 남아가 많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성독신자의 입양 불허, 단, 30세 이상의 독신여성에게는 입양 허용</li> <li>입양 대기 아동 중 여아가 많았으나, 최근 변화가 엿보인다.</li> </ol>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	○	○
아동 송출 통계	200,000여 명	130,000여 명	4,000여 명

입양서류의 기재 오류 등이 지적되고 있다(정현미, 2011: 114). 초창기 입양 관계자는 전후 예외상태(아감벤, 2008)에서 일시적인 방안으로 국외입양제도에 접근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외입양제도의 이점을 쉽게 단념할 수 없었던 한국은 여전히 주요 입양송출국으로 남아 있다.<sup>13</sup>

국외입양제도는 입양송출국에 예기치 않은 문제를 남기게 되는데, 국외입양의 존도가 심화되며 요보호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 입양송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Dubinsky, 2010: 100; Kim, 2010: 33; Pate, 2014: 109). 국외입양 관련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외입양제도가 입양송출국에서 주요 사회복지 방안으로 제도화되어 지속되는 것이다(권희정, 2015: 90).

그렇다면 한국이 주요 입양송출국이 된 까닭은 무엇인가. 첫째, 국외 입양송출의 주된 동기로 정치적·역사적 질곡이 지적되는 한국에서, 국외입양은 한국 전쟁의 상흔에서 비롯되었다(Yngvesson, 2010: 19). 한국전쟁 이후 절대빈곤 상태였던 한국은 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입양제도를 도입했다(Gailey, 2010: 81). 당시 방치되다시피 한 아동 중 한국에 주둔했던 외국 병사와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Pate, 2014: 15). 혼혈아를 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혼혈아 역시 극심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결과, 다수의 혼혈아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등지로 입양되었다(권희정, 2014b: 57). 당시 한국에서는 혼혈아가 생모와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기보다 순혈주의와 가부장주의(‘아버지의 나라로 가라’)의 기조로 혼혈아동의 국외이주에 앞장섰다(권희정, 2015: 65).

둘째, 한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국외입양을 활성화시켰다. 극한의 물자 부족에 시달려서 복지비용을 증액할 여력이 없었던 박정희 정권에서는 정통성 부

<sup>13</sup> 입양특례법 개정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2013년에 국외 입양송출이 급감했다. 2012년 755명이 국외로 입양된 것에 비해 2013년에는 불과 236명이 입양됐다. 그러나 국외 입양송출이 2014년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서 535명이 국외로 입양됐고, 2015년에도 374명이 입양됐다(보건복지부, 2016). 보건복지부의 <2016년 국내외 입양현황>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현재 동아시아 3국의 주요 입양수용국인 스웨덴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이 스웨덴의 최대 입양송출국으로 조사됐다. 2016년 스웨덴에서는 31명의 한국 아동, 16명의 중국 아동, 6명의 대만 아동 등 총 53명의 동아시아 출신 아동을 입양했다. 2016년에 스웨덴에 입양된 국외입양아 중 49%가 한국 출신이었다(Adoptionscentrum, 2017).

족을 경제발전으로 상쇄하기 위해 복지를 유보했다(정소라, 2016b: 54; Pate, 2014: 31). 이후 전두환 정권 역시 경제개발에 치중한 탓에 미혼모의 여건이 개선되지 못했다. 5공화국 시절 국외입양에 대한 제약이 대폭 해제되면서 국외 입양송출이 급증했다(권희정, 2015: 67). 국외입양의 형성 과정에 관한 이해는 왜 아동을 국외로 이산시켰는지를 설명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외 입양송출은 크게 두 측면에서 한국에 유형무형의 이득이 되었다. 우선, 양부모가 입양기관에 지불한 막대한 입양수수료는 재화가 부족했던 당시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Pate, 2014: 103). 또한, 원가족이 양육하기 힘든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키며 관계당국은 복지에 할애해야 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정소라, 2016b: 54; Nelson, 2009: 5). 한국의 국외 입양송출이 관계당국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외 입양기관의 성장은 입양송출을 부추겼다. 입양수용국만의 노력으로 성사될 수 없는 국외입양의 특성상 동아시아 3국에서는 서구의 입양기관과 연계된 기관이 발전을 하게 된다(이예원, 2009: 161; Kim, 2010: 32). 오늘날 한국에는 네 군데의 민간 입양기관이 입양사업을 전담하고 있다.<sup>14</sup> 입양기관은 유기아동 관리 외에도 인력고용과 미혼모 관리에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이 가운데 요보호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자는 기치로 입양사업을 펼친 홀트아동복지회는 팔목상대한 발전을 한다. 민간 입양기관이 고용과 복지를 관할하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공적 성격을 띠면서 국외입양을 촉진했다. 입양기관에서는 입양업무 처리하는 행정인력에서부터 미혼모나 귀환입양인 상담과 같은 대민 업무, 입양 대기아동 위탁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다수 고용돼 있다. 규모가 커진 국외입양 사업은 사회복지 기능을 넘어서 이윤추구 및 인력고용을 비롯한 입양기관 자체의 영속성을 추구하게 되었다(트렌카, 2010: 38). 입양기관의 제도화는 입양송출국에서 국외입양을 중단하기 어렵게 한 부수적 요인이 된다.

넷째, 유교문화가 잠재된 한국은 혈연에 대한 집착과 비혈연 친족관계, 입양에 대한 거부감으로 주요 입양송출국이 되었다. 윤리적 지탄을 받게 된 미혼

<sup>14</sup> 한국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홀트아동복지회 등 네 개의 기관이 있다.

모의 육아를 실질적으로 보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국외입양을 초래했다(권희정, 2015).

다섯째, 장애아 입양기피 현상으로 국내에서 입양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국외로 다수 입양됐다(Dalen, 2007: 203). 2015년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 중 26.5%가 “건강이상” 아동<sup>15</sup>으로 집계됐다(보건복지부, 2016).

국외입양의 역사에서 한국은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양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에서 비롯된 국외입양은 한국 아동이 미국의 가정에 대거 입양되며 ‘인종간 입양’을 현실화시켰다. 한국은 입양송출국으로서 국외입양의 준거가 되고 있다(Ben-Zion, 2014: 3). 혈혈단신이 된 아동이 문화와 언어, 인종이 확연히 다른 나라에 입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에서 전 세계에 보여준 결과 여러 입양수용국에서 국외입양을 확대했다.

이제부터 한국에서 국외입양의 폐단을 해결해나가는 움직임은 살펴보자. 국외입양 연구를 입양수용국 출신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국외 입양송출 과정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국외입양에 관해 본격적으로 비판이 제기된 시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국외 입양송출을 하던 한국의 ‘아기 수출’에 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면서부터다(권희정, 2015: 67). 입양인들이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에서 체험하는 인종주의 피해나 양부모와의 갈등, 입양아의 국적조차 변경하지 않은 미국의 일부 양부모(트렌카, 2010)와 파양, 학대 및 사망 사건은 국외입양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던 여론을 일순간에 바꾸어놓았다.

이에 한국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국외입양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한국에서는 입양인들 및 원가족, 미혼모, 비판적으로 국외입양에 접근하는 비정부기구 등 각계의 활약<sup>16</sup>이 이어지며 입양특례법 개정을 이

<sup>15</sup> “건강이상” 아동 중 1/3가량은 이른둥이와 저체중아였으며 나머지 2/3만 장애아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6).

<sup>16</sup> 한국에서는 입양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입양인이나 원가족, 미혼모 이외에도 국외입양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흐름이 있다. 김도현 목사가 2002년에 설립한 <뿌리의 집(KOROOT)>은 국외입양인 조직화에 기여하며, 비판적 입양연구 학술행사 및 입양 관련 주체의 말하기 행사, 입양 이슈 확산에 적극적이다. <뿌리의 집>은 한국을 방문한 입양인들이 일시적으로 기거할 숙박시설 제공과 출생국에서 소외되기 쉬운 입양인들을 위한 네트워크 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끌어낸다. 이즈음 성장한 입양인들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 한국 태생 입양인 공동체가 결성된다(유혜량·임채완, 2016: 163).<sup>17</sup> 이 모임들은 한국계 입양인 조직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모임의 목적과 성격, 활동, 국외입양에 확연한 입장 차를 보인다(Sørensen, 2014: 155). 입양인들은 입양인 학술행사 및 홈커밍대회를 개최하고, 입양인의 삶을 내밀하게 다룬 자전소설 창작(박정준, 2014) 및 입양 관련 학술행사를 통해 소외되었던 자신들만의 관점을 드러낸다. 이들 가운데 국외 입양송출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벌인 이들도 있다(Trenka, 2011: 143). 입양인단체 중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TRACK)과 <해외입양인연대>(G.O.A.'L)는 국외입양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체험과 기억,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이예원, 2008: 159; 유혜량·임채완, 2016: 165). 오늘날 입양인들은 국외입양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방안이 미혼모의 양육을 한국사회가 돕는 것이라는 취지에서 미혼모들과의 연대에 적극적이다(Trenka, 2011: 138).<sup>18</sup>

입양인들에 비해 원가족은 입양담론에서 소외되어 있다. 입양의 세 주체(adoption triad)<sup>19</sup> 중 하나인 생모를 포함한 원가족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리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생모를 포함한 원가족이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을 버린 엄마’로 지탄을 받던 생모가 목소리를 낸 데는 당사자들의 활약이 주요했는데, 노금주 등은 민들레라는 입양인 원가족 모임을 결성해서 입양 이야기를 토로하는 장을 마련했다(Trenka, 2011: 144-145).

한국에서는 입양인과 원가족, 미혼모, 비정부기구의 조직화와 지식 확산에 힘입어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던 입양법을 2011년 개정된 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한서승희, 2014: 81; Trenka, 2011: 138). 입양특례법은 불법 입양 요소처럼 입양아(인)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입양제도의 허점을 줄여나가는 데

<sup>17</sup> 오늘날 미국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지에 한국 태생 입양인들의 모임이 있다.

<sup>18</sup> 한국에서는 입양인과 원가족, 미혼모가 연대해서 친입양 시각으로 전개되는 입양담론과 차별화된 시각을 제시한다. 일례로 5월 11일 입양의 날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자는 취지의 대안적 행사 ‘싱글맘의 날’이 매년 개최된다(권희정, 2009: 101).

<sup>19</sup> 입양의 세 주체는 입양아(인)와 원가족, 양부모로 구성된다. 이들 중 양부모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처럼 세 주체가 평등하지 않다.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논란에 휩싸이는데, 반대편에서는 유기된 채 죽어가는 아동을 살리기 위해 이 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한다.<sup>20</sup> 하지만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이 왜 증가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영아 유기가 증가하는 데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과 입양을 부추기는 사회풍조와 이 법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베이비박스를 해결방안이라기보다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대형화된 입양기관의 호황과 낙태 범죄화, 성교육과 피임 부족, 양육부담을 미혼모에게 전가하는 현실, 관계당국의 입양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 입양송출국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국외입양제도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입양인들과 원가족, 미혼모, 비정부기구는 대안을 제시하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비판적으로 국외입양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술활동과 미디어의 관심,<sup>21</sup> 입양 테마를 유의미하게 통찰하는 예술작품<sup>22</sup>이 이어지며 새로운 입양 담론을 추동하고 있다.

### 3. 중국: 인구정책으로서의 국외 입양송출

한국보다 뒤늦게 국외입양제도를 도입한 중국에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13만 명가량의 중국 아동이 국외로 입양된 것으로 추산된다(阿波羅新聞網,

<sup>20</sup> 법 시행 이후 아동을 입양기관에 양도할 시 친생부모는 반드시 인적사항을 남겨야 하며, 입양 숙려기간을 지정해서 원가족의 성급한 결정을 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외면한 채 표면에 드러난 사안만으로 입양특례법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시도가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이 법으로 인해 유기아동 및 영아살해가 급증한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일축한다. 베이비박스를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승인받도록 한 입양특례법을 철폐해서 입양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 주장이 언론에 자주 회자되며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불법 입양 사례가 나타나는 현실에서 손쉬운 입양에 방점을 두는 이전 법은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했으며, 성인이 되어서 친생부모를 찾고 싶은 입양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sup>21</sup> 국내 미디어 중 프레시안(pressian.com)은 국외입양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 국내의 입양인들의 기고문을 통해 입양담론을 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up>22</sup> 입양 소재를 진지하게 접근하는 작품들로 영화 『해화, 동』(민용근, 2010)과 『프랑스인 김명실』(이지현, 2014), 『수진과 소피 사이』(Laurent & 최윤정, 2010)와 소설 『아버지, 나의 아버지』(최유정, 2011) 등이 있다.

2014). 중국 아동이 거의 모든 입양수용국에 대거 입양된 결과, 최근 중국 안팎에서 중국의 ‘해외입양’ 실태가 다각도로 조명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국외입양의 전개 과정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23</sup> 20세기 한국은 세계 최대의 입양송출국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거의 모든 국외입양 문헌에 언급되었다(Dubinsky, 2010: 18).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후반 중국으로 계승되는데, 중국의 국외입양은 20세기 말 당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개방되면서 본격화됐다(Kubo, 2009: 12; 范可, 2004).<sup>24</sup>

본 절에서는 중국 국외입양의 원인을 살펴본 후 중국의 여아가 인기를 끄는 현상의 의미를 탐색한다. 중국 국외입양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한자녀정책으로 대표되는 산아제한정책의 폐단(凤笑天, 2010), 둘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여아 유기 현상 및 입양에 대한 편견 등 친족관계 문화로 인한 국외 입양송출 의존, 셋째, 불법 입양이나 유괴, 열악한 사회복지 등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입양제도의 폐단을 들 수 있다(范可, 2004: 63). 이 가운데 첫째 원인은 둘째 원인과 상호작용하며 중국을 세계 최대 입양송출국으로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한자녀정책과 남아선호사상이 국외입양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Kubo, 2009: 14).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인 한자녀정책(Fong, 2002)이 시행되던 중국에서 도시 거주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녀를 한 명 이상 낳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Philips, 2015). 이 정책을 위반한 경우 납부한 거액의 벌금이 지방정부 재정에 쓰였는데, 한화로 천만 원이 넘는 막대한 벌금을 내지 못한 부부의 자녀는 미등록아동이 되어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Hatton, 2014). 장차 부모 부양이나 제사를 담당할 아들을 갖기 위해 첫 아이로 딸을 낳은 부모 중 일부가 여아를 유기하면서 입양아 대부분

<sup>23</sup> 도로우(Sara D. Dorow)나 애너그노스트(Ann Anagnost)를 비롯한 연구자는 중국 여아의 국외입양에 주목하는데, 한자녀정책이나 남아선호사상의 부산물로서의 유기아동 발생 및 국외입양, 중국 입양아의 ‘문화 대사(ambassador)’로서의 역할 기대, 중국 입양아 중 상당수가 여아인 관계로 입양과 젠더의 상관관계,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에 입양이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Anagnost, 2000; Dorow, 2006).

<sup>24</sup>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며 당대 주요 입양송출국의 국외입양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한국과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의 국외 입양송출 감소를 보충한 국가는 신흥 입양송출국인 중국과 러시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Fonseca, 2002: 28).



이 여아인 성비불균형이 나타났다(新浪, 2015).

이쯤에서 중국의 여아가 서구에 널리 입양된 원인을 살펴보자. 우선, 남아선호사상의 피해자로 인식된 중국의 여아 입양이 일부 양부모에게 ‘구출(rescue)’ 행위로 인식되었다(Kim, 2010: 70). 더불어, 중국의 여아가 표상하는 이미지가 서구의 양부모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여아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경계인으로서 서구사회에서 아시아 여성이 내포하는 성애화된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다(Choy, 2013: 5). 중국의 여아는 양순하고 여성답게 성장해서 귀여운 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周易, 2016).

셋째, 오늘날 강국으로 거듭나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중국 아동을 입양해 궁극적으로 중국문화를 수용하겠다는 서구인의 욕망이 표출되고 있다(范可, 2013: 63; Dorow, 2006: 67). 반면, 자신의 가정을 다문화가정으로 규정하는 양부모가 드문 현실에서, 적지 않은 양부모는 중국 입양아가 집안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가정’이라는 인식을 수정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다(Jerng, 2010: 188).

넷째, 국외입양의 속성상 양부모는 입양아의 국적을 우연히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부모는 거시적 요구사항을 결정한 뒤 세부사항을 입양기관의 조언이나 입양 대기아동에 따라 입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오늘날 입양대기 아동 중 중국 아동이 많은 상황이 중국 아동의 국외입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중국의 입양기관이 전 세계 주요 입양기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中国儿童福利和收养中心, 2011).

다섯째, 타국 출신 아동들에 비해 중국 입양아의 생모가 에이즈에 감염되거나 마약을 남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도 중국 아동 입양을 부추긴다(范可, 2004; Gailey, 2010: 102).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 출신의 아동에게서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중대한 신경정신질환이나 태아알코올증후군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중국 아동에게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나타난다(박정준, 2016). 중국 입양아들은 보통 국외로 입양되기 전 평범한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는다.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아동보육시설은 아동의 인지발달 장애와 애착관계 형성 지장, 지능발달 저해 등 성장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Yngvesson, 2010: 105; Novy, 2005: 215). 또한 늦은 나이에 입양될수록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데, 상당수 중국 입양

아가 4세 이하일 때 입양된다는 점도 서구에서 중국 입양아를 선호하는 이유다 (McDonald, 2012).

여섯째, 최근 나아지고 있지만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팽배한 점도 중국 아동의 국외입양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입양의 비중을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국내입양이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과 유사하게 중국에서도 입양에 관한 편견이 상당하다.<sup>25</sup> 중국 태생 미국 입양인 쿡(Jenna Cook)은 입양에 반감이 강한 중국에서 양부모들이 먼 곳으로 이사하며 입양 사실을 숨긴다고 주장한다.<sup>26</sup>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은 중국이 국외 입양송출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원인이 결합되어서 전 세계에 입양된 중국 입양아는 중국 국외입양의 역사가 한국보다 길지 않아 한국 입양인에 비해 덜 부각돼 있다. 중국 입양인들은 향후 자조조직 결성이나 중국으로의 ‘뿌리 찾기’ 여행(친생부모 찾기 및 입양기록 열람), 입양 체험을 서술한 자전소설 발간, 입양국 내 중국어 학교 등교 및 중국 인과의 교류 등을 활발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范可, 2013: 62). 중국의 국외입양은 21세기 강국의 위상을 지닌 중국의 대외 이미지와 대조된다. 향후 중국 정부가 국외입양에 아로새겨진 모순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최근 중국에서도 한국과 유사하게 국외입양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중국에서는 국내입양 증가를 통한 국외 입양송출 억제 및 한자녀정책 폐지를 통한 아동(특히 여아) 유기를 억제하고 있다.<sup>27</sup> 오늘날 중국에서 입양될 수 있는 아동이 감소하는 원인은 복합적인데,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으로 인한 빈곤 감소 외에도 국내입양의 증가로 국외 입양송출이 줄어들고 있다(沈子灝, 2011). 무엇보다도 한자녀정책 폐지가 유기아동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에서도 입양전문기관이 설립되면서 표준화된

<sup>25</sup> 중국의 낮은 국내입양 실태는 한자녀정책과 연관돼 있었는데, 도시에서 한 명 이상의 자식을 두는 것이 불허된 까닭에 무자녀 커플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이 사실상 불허된 셈이었다. 중국의 불임커플 역시 대개 남아 입양을 선호한 까닭에 주로 여아들이 국외로 입양되었다.

<sup>26</sup> 중국 태생 미국 입양인 제나 쿡이 2016년 8월 〈뿌리의 집〉 특별강연 〈말할 수 없는 것〉(Unspeakable)에서 중국의 입양 현황에 관해 발표했다.

<sup>27</sup> 최근 중국에서 한자녀정책 폐지 이후 인구증가가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인구가 7.9% 증가하면서 21세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BBC News, 2017).

입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입양아의 권익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양부모에게만 입양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는 중국에서 좀 더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4. 대만: 한국식 입양송출

21세기 이후 입양송출을 본격화한 대만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 자국 아동을 입양 보내고 있다(Adoptionscentrum, 2017;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6; HCCH, 2016). 2004년과 2009년 사이 대만의 국외 입양송출이 두 배가량 상승했다(Selman, 2015: 315). 대만의 아동국통계(兒童局統計)에 따르면, 2012년에 입양된 273명의 아동 중 80명이 국내로, 나머지 193명이 국외로 입양되며 입양비율에서 국외입양이 73%를 차지했다(王美恩, 2014). 대만에서는 경제 사정이 악화될수록 국외 입양송출이 증가하고 있다(Fuchs, 2013). 대만의 국외입양은 중국보다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 그 이유는 저조한 국내입양 실태나 혈연에 대한 집착(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미혼모 가구에 대한 지원 부족과 혼외임신에 대한 반감(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경제양극화의 결과 국외 입양송출 조건이 형성된 것이 한국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국외 입양송출에 소극적이었으나 21세기 이후 여러 국가에 입양을 보내고 있다. 국외입양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천주교복지회(天主教福利會)와 구세군(基督徒救世會)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유기아동이나 미숙아,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요보호아동, 구순구개열 아동을 주로 “국외원조(外援)” 방식으로 입양을 보냈다(王美恩, 2014; 天主教福利會, 2016). 1985년까지 종교기관에서 입양을 주관한 결과 상당수 양부모가 신앙인이었다(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국외로 입양된 대만 아동은 국외에서 ‘중국 입양아’로 통칭되며 ‘대만 입양아’로서의 존재감이 덜 부각되는 편이다. 대만 입양아는 출생국 대만과 기원으로서의 중국을 동시에 ‘뿌리’로 인식하는 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 대만 입양의 특수성을 살펴봄에 국외 입양송출의 증가 원인을 살

펴보자. 첫째, 대만사회에서 가족의 위상이 입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가족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가부장주의가 온존해 있는 대만에서 자식의 결혼이나 임신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딸이 결혼 전에 임신하면 집안을 망신시킨다는 이유로 부모가 낙태를 권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는 경제적 어려움과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려워 입양을 선택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대만의 국내입양의 경우 가문을 계승하기 위한 남아 입양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여아를 입양하는 양부모가 증가하고 있다(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이에 따라, 중국과 달리 입양아의 성비불균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대만의 공교육 과정에 성교육이 부족해서(陳昭佩, 2015)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피임방법을 잘 몰라서 임신하는 일들이 발생한다(The China Post, 2014).

셋째, 대만에서는 전통적으로 입양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5). 대만에서는 국내입양 시 입양할 아동의 원가족의 지적 수준이나 인성, 유기된 사정을 고려한 뒤 입양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입양에 대한 고정관념 탓에 입양한 이후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입양한 것을 후회하는 일이 벌어진다(Halvarson, 1991).

넷째, 대만에서는 입양되기 쉬운 아동의 특성이 있는데 이들 중 일부가 국외로 입양된다(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입양아 중 비장애아 비율이 높은 한국과 달리 현재 대만에서는 상당수 입양아가 장애아인데, 사회경제적 약자의 자녀 및 장애아가 주로 입양되는 것이다.

다섯째, 전통적으로 국가가 개인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보편적이지 않은 대만에서 사회복지가 부족해서 복지국가에 비해 개인이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Huang et al., 2011: 734). 그 결과 국가 보조를 받기 어려운 미혼모가 입양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한다.

위에 제시된 국외입양을 촉진하는 문제점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입양아보다 양부모의 이익을 중시하는 풍토는 아동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위 ‘나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나쁜 씨’를 외면하겠다는 풍조와 장애아 입양 기피현상은 국외입양 의존을 심화시켰다. 대만이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대로 입양의 전 과정에서 입양자와 원가족, 입양아 중 입양아의 이익

을 우선하라는 권고가 대만에서 적절하게 지켜지는지 점검되어야 한다(自由時報, 2015; CNA, 2014).<sup>28</sup>

대만에서 아동·청소년입양정보센터(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가 설립된 2005년은 국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의 대만 방문이 본격화된 시기와 맞물린다(兒童及少年收養資訊中心, 2014). 대만 태생 미국 입양인 작가 메이링 호프굿(Mei-Ling Hopgood)이 2009년 『운 좋은 소녀(Lucky Girl)』를 출간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sup>29</sup> 2012년 대만에서는 2011년 입양법 개정을 통해 입양제도를 쇠신했는데, 입양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적 입양을 금지하고 공인기관만이 절차(天主教福利會, 2016)에 따라 입양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王美恩, 2014).

오늘날 대만에서는 입양인들의 목소리에 주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王美恩, 2014). 과거 불법 입양의 피해를 입은 입양인들은 ‘뿌리 찾기’를 하며 입양인으로서 겪은 체험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국외입양을 아동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움직임이 싹트는 등 국외입양의 역사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시정해나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 III. 결론

본고는 동아시아 3국의 국외입양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3국은 입양을 중심으로 여러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동아시아 3국의 국외 입양송출의 공통 원인으로 입양수용국들에 비해 열악한 사회복지를 지적할 수 있다. 혼외관계에서 출산한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부족과 편견은 오늘날 대만이나 한국에서 입양아의 상당수가 미혼모의 자녀인 결과를 초래

<sup>28</sup> 대만에서는 1980년대 불법 입양 사건이 재조명되며 국외입양 역사의 오점이 회자되고 있다. 핀란드 입양인 콘니 비크를 비롯한 100여 명의 입양인은 1980년대에 추리칭(褚麗卿)과 남편의 불법 입양으로 미국과 호주, 스웨덴, 핀란드에 입양되었다. 당시 불법 입양된 아동 중 상당수가 미혼모의 자녀였는데, 피해자들의 원가족 찾기는 입양서류가 위조된 탓에 난항을 거듭한다.

<sup>29</sup> 메이링의 작품 『운 좋은 소녀(Lucky Girl)』가 대만에서 『납치된 딸』이라는 상반된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하고 있다. 둘째, 동아시아 특유의 혈연중심 친족관계는 국외입양의 원인이 되어왔다. 셋째, 국외입양이 민간에서 추진되며 일군의 국외입양 기관은 사회복지 기능을 넘어서 이윤추구와 기관의 영속성, 인력고용을 추구하며 입양 촉진을 부추겼다. 넷째, 동아시아 3국에서는 양육을 원하는 친생가족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입양이나 위탁가정 보호, 보육시설 입소를 통해 요보호아동을 관리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한 예로, 한국에서는 국내입양을 한 양부모가 받는 각종 혜택에 비해 미혼모가 받는 지원이 현저히 적다(권희정, 2009: 100).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민국가가 적합한 부모로 판정되지 않은 사람의 양육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sup>30</sup>

반면, 동아시아 각국은 국외입양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 여러 차이점을 나타낸다. 첫째, 중국의 한자녀정책이나 1970년대 한국의 출산억제와 이민장려는 인구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점에서 동일한 출발선상을 보인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한국에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한다. 반면, 최근까지 한자녀정책을 고수한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재생산 정책이 남아선호사상과 결합되면서 수많은 여아가 국외로 입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Kim, 2010: 35). 둘째,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대만에서 입양아 중 남아가 많다는 성비불균형은 국내입양에서 여아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Selman, 2013). 상속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여아가 키우기에 무난할 것이라는 관념이 동아시아에서 확산되며 자국에서 입양되지 못한 대만과 한국의 남아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국외입양의 역기능이 속속 지적되는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은 국외입양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자국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동들을 서구에 위탁해온 “대리모 복지체계(surrogate welfare system)”(Kim, 2010: 24)라고 불리는 국

<sup>30</sup> 한국에서 양부모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① 입양기관에 지급하는 입양비용 지원(전문기관 270만 원, 지정기관 100만 원), ②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만 14세 전, 월 15만 원 지급), ③ 장애아동 입양 시 부가혜택: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별도 지원(만 18세 전), 입양양육보조금으로 중증 월 62만 7천 원, 경증 및 기타 월 55만 1천 원 지급, ④ 의료비 연 260만 원 한도 지원, ⑤ 의료급여를 1종으로 지정하여 의료비 지원, ⑥ 심리치료 지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만 18세 전, 월 20만 원 한도).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adoption.or.kr/counsel/counsel\\_adopt\\_process.jsp](https://www.kadoption.or.kr/counsel/counsel_adopt_process.jsp)

의 입양송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동아시아에서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투고일: 2016년 12월 14일 | 심사일: 2017년 1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월 25일

## 참고문헌

- 권희정. 2015. “입양실전에서 나타나는 정상가족 담론과 미혼모 자녀의 ‘고아’ 만들기.” 『페미니즘 연구』 15권 1호, 51-98.
- 권희정. 2014a. “한국의 미혼모성에 관한 연구: 근대 이후 가족과 입양제도의 변화 및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 권희정. 2014b. “‘미혼모성’의 경험을 통해 본 근대의 탈모성화 역사.” 『구술사연구』 5권 2호, 37-80.
- 권희정. 2011. “인권, 모성권, 아동복지 측면에서 본 비혼모를 둘러싼 쟁점들.” 『이화젠더법학』 2권 2호, 53-78.
- 권희정. 2009. “사랑의 사각지대: 가슴으로 낳은 사랑, 배 아파 낳은 사랑은...?” 『여/성이론』 21권, 99-111.
- 김재민. 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정준. 2014. “한국 태생 국외입양인의 작품에 나타난 자아 재구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정준. 2016. “러시아·미국 국외입양 논전에 나타난 아동의 소외.” 『러시아연구』 26권 2호, 111-140.
- 보건복지부. 2016. “2015년 입양 관련 통계.” 보건복지부.
- 아감벤, 지오르시오 저. 박진우 역. 2008. 『호모사케르: 주권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새물결.
- 유혜량·임채완. 2016. “해외입양 한인의 정체성 정치: “뿌리찾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9권, 149-169.
- 이삼식. 2014.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 동향.” 『보건복지포럼』 213권, 5-13.
- 이예원. 2008. “귀환 해외 입양인 조직화와 디아스포라 운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예원. 2009. “한국사회의 귀환 입양인 운동과 시사점: 입양 체계라는 관점에서의 해외 입



- 양역사 서술 그리고 해외 입양인의 구술사를 통하여.” 『민족연구』 37권, 158-178.
- 정소라. 2016a. “‘가부장’ 없는 가부장제: 한국 미혼모의 입양과 양육 실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소라. 2016b. “한국 입양법 변화의 사회적 의미: 1967년 입양법과 2012년 입양법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5권, 46-62.
- 정현미. 2011. “비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권리 보장 방안.” 『이화젠더법학』 2권 2호, 109-134.
- 트렌카, 제인 정. 2010. “백만 명의 살아있는 유명들: 구조적 폭력, 사회적 죽음 그리고 한국의 해외입양.” 『여/성이론』 22권, 33-51.
- 한서승희. 2014. “이주의 사회과학적 고찰: 국외 입양과 아동의 이주.” 『민족연구』 60권, 68-85.
- 阿波羅新聞網. 2014. “那些被外國人收養的中國棄嬰 圖.” 阿波羅新聞網.
- 中華民國統計資訊網. 2015. Statistical Yearbook of Republic of China 2014. Taipei City: Director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 陳昭佩. 2015. “自由廣場 缺乏性教育 增加性風險.” 自由廣場.
- 范可. 2013. “从“悄然无声”到“引人注目”: 关于美国公民的跨国领养.” 『21世紀東アジア社会学』 第5号.
- 范可. 2004. “跨国领养: 对美国公民领养中国婴孩及其相关现象的考察.” 『世界民族』 3.
- 风笑天. 2010. “中国独生子女: “小皇帝”还是新公民.” 『21世紀東アジア社会学』.
- 高晓莹. 2010. “拐卖儿童罪之犯罪学探析.” 『中国青年政治学院学报』 6.
- 全国人民代表大会. 1992. “中华人民共和国收养法.” 全国人大常委会.
- 梅齡. 2009. 『被抱走的女儿』. 宝瓶文化.
- 沈子涵. 2011. “美國人海外領養兒童銳減 中國仍是最大來源地.” 『中央網路報』.
- 王美恩. 2013. 『愛, 無國界: 台灣孩子, 荷蘭父母的收養故事』. 親子天下.
- 王美恩. 2014. “21世紀的今天, 為何我們還需要被荷蘭人照顧?” 『天下雜誌出版』.
- 周易. 2016. “那些被中国人遗弃的女孩和他们的美国养父.” 安家美国.
- Anagnost, Ann. 2000. “Scenes of Misrecognition: Maternal Citizenship in the Age of Transnational Adoption.” *East Asia Cultures Critique* 8(2), 389-421.
- Ben-Zion, Sigalit. 2014. *Constructing Transnational and Transracial Identity: Adoption and Belonging in Sweden, Norway, and Denmark*. London: Palgrave Macmillan.
- Brian, Kristi. 2012. *Reframing Transracial Adoption: Adopted Koreans, White*

- Parents, and the Politics of Kinship*.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Briggs, Laura. 2012. *Somebody's Children: The Politics of Transracial and Transnational Adop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astañeda, Claudia. 2002. *Figurations: Child, Bodies, World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Cernada, George P. et al. 1986. "Implications for Adolescent Sex Education in Taiwan." *Study Family Planning* 17(4), 181-187.
- Choy, Christine C. 2013. *Global Families: A History of Asian International Adoption i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Dalen, Monica. 2007. "Educational Achievement Among International Adoptees." *Anuario de Psicología* 38, 199-208.
- Dalen, Monica and Steinar Theie. 2012. "Internationally Adopted Children from Non-European Countries: General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Two Years in the Adoptive Family."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1, 1-9.
- De Graeve, Katrien. 2013. "'They Have Our Culture': Negotiating Migration in Belgian-Ethiopian Transnational Adoption." *Ethnos: Journal of Anthropology*, 1-20.
- Dijkstra, Peter and Daniel Schwegendiek. 2011. "Gender-Asymmetry in Dating Success of Korean Adoptees in the West." *Sociology Mind* 1, 91-95.
- Dorow, Sara K. 2006. *Transnational Adoption: A Cultural Economy of Race, Gender, and Kinship*.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Dubinsky, Karen. 2010. *Babies without Borders: Adoption and Migration across the America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Eng, David L. 2010. *The Feeling of Kinship: Queer Liberalism and the Racialization of Intimac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Fong, Vanessa L. 2002. "China's One-Child Policy and the Empowerment of Urban Daughters." *American Anthropologist* 104(4), 1098-1109.
- Fonseca, Cláudia. 2002. "An Unexpected Reversal: The "Demise"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Brazil." *Adoption & Fostering* 25(3), 28-39.
- Gailey, Christine W. 2010. *Blue-Ribbon Babies and Labors of Love: Race, Class, and Gender in U.S. Adoption Practi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Halvarson, Camilla. 1991. *Adoption in Taiwan: A Study of the Background and*

- Reasons for Adoption in Taiwan Today*. Stockholm: Institute of Oriental Languages, Stockholm University.
- Howell, Signe. 2007. *The Kinning of Foreigners: Transnational Adoption in a Global Perspective*. Oxford: Berghahn Books.
- Huang, Chien-Chung and Yeun-Wen Ku. 2011. "Effectiveness of Social Welfare Programmes in East Asia: A Case Study of Taiwan."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5(7), 733-751.
- Jerng, Marc C. 2010. *Claiming Others: Transracial Adoption and National Belong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Kim, Eleana J. 2010. *Adopted Territory: Transnational Korean Adoptees and the Politics of Belonging*.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Kim, Hosu. 2015. "The Biopolitics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South Korea." *Body & Society* 21(1), 58-89.
- Kim, Hosu. 2012. "Television Mothers,"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12(5), 438-449.
- Kubo, Kazuyo. 2009. *Transnationalizing Families: Race, Multiculturalism and Transnational Adoption*.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 Leinaweaver, Jessica B. 2013. *Adoptive Migration: Raising Latinos in Spai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Lind, Judith. 2012. "'As Swedish as Anybody Else' or 'Swedish, but also Something Else'? Discourses on Transnational Adoptee Identities in Sweden." *Adoption & Fostering Journal* 36(3), 85-96.
- Myong, Lene and Michael Nebeling Petersen. 2015. "(Un)liveabilities: Homonationalism and Transnational Adoption." *Sexualities* 18(3), 1-17.
- Nelson, Kim Ja Park. 2009. *Korean Looks, American Eyes: Korean American Adoptees, Race, Culture and Nation*. Ph. D. Thesis. University of Minnesota. USA.
- Novy, Marianne. 2005. *Reading Adoption: Family and Difference in Fiction and Dram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ate, Soojin. 2014. *From Orphan to Adoptee: U.S. Empire and Genealogies of Korean Adoption*.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Poncz, Elisa. 2007. "China's Proposed International Adoption Law." *Harvard ILJ*

*Online* 48, 74-82.

- Rinhaug, Aino. 2010. "Adoptee Aesthetics: A Gendered Discourse." *Race/Ethnicity: Multidisciplinary Global Contexts* 4, 9-27.
- Selman, Peter. 2006. "Trends in Inter-country Adoption: Analysis of Data from 20 Receiving Countries, 1998-2004."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3(2), 183-204.
- Selman, Peter. 2009. "The Rise and Fall of Inter-country Adoption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Social Work* 52(5), 575-594.
- Selman, Peter. 2012. "Global Trends in Inter-country Adoption 2001-2010." *Adoption Advocate* 44, 1-17.
- Selman, Peter. 2015. "Inter-country Adoption of Children from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ldren's Geographies* 13(3), 312-327.
- Sørensen, Eli Park. 2011. "Desire and Censorship in Astrid Trogz's *Blod är tjockare än vatten*." 『세계문학비교연구』 37권, 543-567.
- Sørensen, Eli Park. 2014. "Korean Adoption Literature and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12(1), 155-179.
- Trenka, Jane Jeong. 2011. "Internationally Adopted Koreans and the Movement to Revise the Korean Adoption Law." 『이화젠더법학』 2(2), 135-169.
- Tuan, Mia and Jianbin Lee Shiao. 2011. *Choosing Ethnicity, Negotiating Race, Korean Adoptees in America*.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Yngvesson, Barbara. 2010. *Belonging in an Adopted World: Race, Identity, and Transnational Adop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Zhao, Yan. 2012. *Negotiating Differences: Transnational Adoption, Norwegianness and Identity Work*. Ph. D. Thesis. University of Nordland. Norway.

### 〈인터넷 자료〉

-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https://www.kadoption.or.kr/counsel/counsel\\_adopt\\_process.jsp](https://www.kadoption.or.kr/counsel/counsel_adopt_process.jsp) (검색일: 2016. 8. 8).
- 自由時報. 2015. "代辦收養柯尼 褚麗卿駁跨國販嬰." 自由時報. <http://news.ltn.com.tw/news/life/paper/856098> (검색일: 2016. 9. 13).
- 李冬琪. 2007. "告訴你真相: 為什麼老美喜歡領養中國孩子?" 『阿波羅新聞網』. <http://tw.aboluowang.com/2007/1222/68381.html> (검색일: 2016. 9. 12).

- 林妍. 2016. “美夫婦不惜舉債 再收養中國養女的雙胞胎姐妹.” 大紀元. <http://www.epochtimes.com/b5/16/5/10/n7882290.htm> (검색일: 2016. 9. 10).
- 沈子涵. 2011. “美國人海外領養兒童銳減 中國仍是最大來源地.” 『中央網路報』. <http://www.chinareviewnews.com> (검색일: 2016. 8. 27).
- 文匯網訊. 2013. “領養大國美國被曝棄養黑幕.” <http://news.wenweipo.com/2013/10/08/IN1310080059.htm> (검색일: 2016. 7. 29).
- 新浪. 2015. “美国家庭收养中国孤儿-收养数据.” <http://news.sina.com.cn/w/t/20151124/0917312.shtml> (검색일: 2016. 9. 5).
- 天主教福利會, 2016. “國際收養.” [http://www.cs.org.tw/OnePage\\_1.aspx?id=47](http://www.cs.org.tw/OnePage_1.aspx?id=47) (검색일: 2016. 7. 21).
- 中国儿童福利和收养中心. 2011. “国外收养组织.” <http://cccwa.mca.gov.cn/article/sysw/zfbmzz/201103/20110300141817.shtml> (검색일: 2016. 6. 18).
- Mcdonald, Mark. 2012. “中國拐賣兒童猖獗.” *The New York Times*(중국어판). <http://cn.nytimes.com/china/20121228/c28child/zh-hant/> (검색일: 2016. 9. 14).
- Adoptionscentrum. 2017. “Adoption Statistics.” <https://www.adoptionscentrum.se/en/Adoptions/Adoption-Statistics/> (검색일: 2016. 8. 21).
- Australian InterCountry Adoption Network. 2016. “International Adoption Statistics; By Country of Origin.” <http://www.aican.org/statistics.php?region=0&type=birth> (검색일: 2016. 6. 24).
- BBC. 2017. “China birth rate up after one-child rule change.” *BBC World*. <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38714949> (검색일: 2017. 2. 10).
- CNA. 2014. “Taiwanese adopted overseas search for biological parents.” *The Taipei Times*. <http://www.taipetimes.com/News/taiwan/archives/2014/03/04/2003584845> (검색일: 2016. 7. 26).
- Fuchs, Chris. 2013. “So you want to adopt a child from Taiwan?” *Taipei Times* <http://www.taipetimes.com/News/feat/archives/2013/08/28/2003570748> (검색일: 2016. 7. 6).
- Hatton, Celia. 2014. “Children denied an identity under China’s one-child policy.” *BBC World* [www.bbc.com/news/world-asia-china-25772401](http://www.bbc.com/news/world-asia-china-25772401) (검색일: 2016. 11. 24).
- Phillips, Tom. 2015. “China ends one-child policy after 35 year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oct/29/china-abandons-one->

child-policy (검색일: 2016. 5. 30).

Selman, Peter. 2016. "Receiving States 2004-2014, States of Origin 2004-2015." *Newcastle University*. <https://assets.hcch.net/docs/3bead31e-6234-44ae-9f4e-2352b190ca21.pdf> (검색일: 2016. 6. 6)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2016. "Intercountry Adoption Statistics." <https://travel.state.gov/content/adoptionsabroad/en/about-us/statistics.html> (검색일: 2016. 8. 7)

The China Post. 2014. "Taiwan must develop proper sex education curriculum." <http://www.chinapost.com.tw/editorial/2014/06/16/410224/Taiwan-must.htm> (검색일: 2016. 7. 3).

---

**Abstract**

## The Unfolding of the Transnational Adoption Systems of the Three Asian Countries, China, Korea, and Taiwan

Jeongjun Park *Chung-Ang University*

---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hina, Taiwan are commonly known as “sending countries” for transnational adoption. Many Korean adoptees who had been sent abroad after the Korean War have formed multi-ethnic families where family members do not share common race or culture. The early phase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Korea was almost similar to being an “exceptional state.” Nonetheless, the placements of the Korean children into foreign families have lasted for more than six decades. China had kicked off its transnational adoption in around the 1990s. Now China has become the principal “sending country,” as how Korea was in the 20th century. The One Child Policy in conjunction with preference for sons are said to be the main reasons why some Chinese parents relinquish their daughters. The transnational adoption in Taiwan is on the increase owing to its weakening economy and lack of social welfare that is designed with the intention of keeping single mothers reinforcing parenthood.

Extreme poverty, AIDS pandemic,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s and illegal adoption networking are the main reasons for transnational adoption in other “sending countries” in Africa and Latin America, Southeast Asia. In contrast, non-economic factors are the principal reasons of transnational adoption in the East Asian countries. This fact indicates that it is not



possible to solve adoption-related problems only by mean of economic development.

The East Asian countries face severe aging population issues and the lowest fertility rates as many receiving countries. It is found that these countries try to solve the population crisis by way of helping families from falling apart. Nevertheless, numerous Korean and Taiwanese children, mostly abandoned by single mothers, are brought over from East Asia to be adopted by Western families.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girls have been adopted by Western parents.

The East Asian countries are boasting economic miracles, the transnational adoption phenomena reveals these countries' backwardness in social welfare and their dependence on the West. Such social phenomena give rise to collective shame among some East Asians. Transnational adoption has been increasingly criticized in recent years as being unfair to both the adoptees and their birth parents. Adoptees and their birth families, activists make their voices heard recently. This is the very time we should be thinking about the changeover of transnational adoption systems.

**Keywords** | East Asian Countries, transnational adoption, sending country, critical adoption study, institutionalization of adoption